

조선/기계 김 현

02. 6098-6699 / hyun.kim@meritz.co.kr

**국내 주요 조선/기계 업체 Valuation**

업체명	시가총액 (십억원)	외국인지분율 (%)	종가 (원)	1D	1M	3M	YTD	PER(x)		PBR(x)		ROE (%)	
				(%)	(%)	(%)	(%)	18E	19E	18E	19E	18E	19E
현대중공업	7,961.5	20.4	140,500	3.3	4.9	-5.1	39.8	97.9	46.9	0.7	0.7	0.7	1.4
현대로보티스	7,345.3	21.7	451,000	4.4	22.2	1.5	18.4	6.1	5.1	0.8	0.7	14.1	14.7
현대알렉트릭	1,178.8	8.6	115,500	1.8	4.5	-5.5	1.3	11.0	9.5	1.0	0.9	9.3	9.7
현대건설기계	1,920.9	10.2	194,500	-1.3	18.2	7.3	15.1	12.4	9.1	1.4	1.2	11.7	13.9
삼성중공업	3,580.2	19.1	9,180	5.5	27.5	-16.9	25.2	57.9	28.7	0.6	0.5	1.0	1.9
대우조선해양	2,079.8	5.4	19,500	0.5	29.1	N/A	40.3	11.0	16.8	0.5	0.5	4.9	3.3
현대미포조선	2,150.0	13.6	107,500	4.9	16.2	9.2	36.6	23.2	16.7	0.8	0.8	3.6	4.8
한진중공업	387.6	6.0	3,655	3.1	13.5	-0.5	10.4	73.5	18.3	0.5	0.5	0.7	2.8
현대엘리베이터	1,396.7	35.2	56,700	2.0	4.6	5.0	4.2	10.0	9.7	1.4	1.2	14.6	13.3
두산밥캣	3,573.9	27.5	35,650	0.6	1.6	-5.3	-0.4	13.1	12.3	1.0	1.0	7.4	7.6
현대로템	1,432.3	26.5	16,850	0.0	-11.3	-2.6	-10.1	21.7	14.8	1.0	0.9	4.5	6.3
하이록코리아	350.5	47.7	25,750	0.8	14.2	18.7	14.4	11.7	10.7	1.0	0.9	8.8	9.0
성광밴드	341.8	15.5	11,950	5.8	18.9	28.9	19.7	1,056.4	428	0.8	0.7	0.1	1.8
태광	382.9	16.9	14,450	2.8	20.4	51.3	19.9	863	421	0.9	0.9	1.0	2.1
두산중공업	1,692.8	9.6	15,900	2.9	1.6	-13.6	3.6	10.8	8.4	0.5	0.5	4.6	6.0
두산인프라코어	2,298.4	12.8	11,050	0.9	29.4	20.5	27.2	9.9	9.1	1.0	0.9	10.8	10.1
두산엔진	295.4	3.5	4,250	1.8	9.7	11.5	15.3	58.9	37.9	0.5	0.5	0.9	1.4
한국항공우주산업	5,214.9	18.2	53,500	0.2	15.8	-5.6	12.8	32.7	24.2	3.7	3.4	11.6	14.4
한화테크윈	1,756.8	16.8	33,400	1.1	-2.3	-7.4	-6.0	18.1	13.8	0.7	0.7	4.0	5.1
LIG넥스원	1,196.8	11.1	54,400	0.6	-3.2	-28.7	-9.0	16.4	12.8	1.7	1.6	10.9	12.8
태웅	466.2	2.3	23,300	6.2	25.6	30.9	20.4	N/A	N/A	N/A	N/A	N/A	N/A
동성화인텍	190.0	4.1	7,040	2.6	45.6	41.6	39.4	-293.3	41.7	2.0	2.0	-0.7	5.0
한국카본	302.5	15.5	6,880	3.5	30.3	16.0	28.4	26.8	25.7	0.9	0.9	32	36

주: 커버리지 업체 PER/PBR/ROE는 메리츠증권증권 추정치, 그 외 업체는 Bloomberg 컨센서스 수치 /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증권 리서치센터

주요 지표 및 차트**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조선 인력 10만명 봉괴 눈앞...시장점유율 추락 日 전철밟나**

조선해양플랜트협회에 따르면, 인건비 감축 추세를 감안했을 때 조선업 종사자가 작년 말 11만명에서 올해 상반기 10만명 이하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함. 집계된 수치는 작년 상반기 기준 조선업 근로자는 13만 8,400명으로 알려짐. 또 협회는 10만명이 글로벌 시장점유율(28%) 유지의 최소 인원으로 분석함. (서울경제)

BP and Oman sign LNG supply deal

오일메이저 BP Singapore은 Oman LNG에서 향후 7년간 1.1MTPA(Million Tonnes Per Annum) LNG를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알려짐. 구매계약은 2018년 1월부터 진행되며, 계약 상에서 도착지 제한 규정이 없다고 알려짐. 이로써 사용 후 남는 가스를 재판매할 수 있다고 알려짐. (TradeWinds)

Ocean Tankers adds up to 10 more newbuilds

싱가폴 Ocean Tankers는 중국 Fujian Mawei 조선소에 23,500DWT급 PC선 6+4척을 발주했다고 알려짐. 선기는 공개되지 않았고, 인도는 2020년으로 예정됨. 이번 발주로 Ocean Tankers는 신조선 28척을 확보해 126척의 선대를 보유하게 될 예정이고, 옵션 12척을 가진 것으로 알려짐. (TradeWinds)

Aker snags subsea double from Statoil

Aker Solutions은 노르웨이 Statoil과 Troll Phase 3 및 Askeladd 프로젝트의 Subsea 생산시스템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알려짐. Aker는 두 프로젝트에 Manifold과 Tree를 납품할 예정이며, 계약규모는 1.9~2.5억달러에 달함. Statoil은 표준화를 통한 비용절감을 위해 Aker와 계약했다고 알려짐. (Upstream)

배 위에 또 다른 정제 공장을?

2020년 IMO의 환경규제에 대응하는 방안 중 하나인 스크러버 장착에 대해 Concordia 관계자는 선박 위에 비싼 비용을 들여 정제공장을 짓는 셈이라고 거부감을 나타냄. 특히 현재 스크러버를 장착한 맹커는 전체 중 1%도 안되며, 이는 대부분 저유황유(MGO)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함. (선박뉴스)

드라이벌크 시황 사이클 금년 늦게 피크 예상

올해 드라이벌크선 시장은 수요가 3.6% 증가하는 반면 공급은 1% 증가에 그칠 전망임. 따라서 올해 말에서 내년 초에 시황 사이클 피크를 예상함. 그러나 케이프사이즈선 운임은 신조선 인도량 증가에 따라 2018년 2만달러에서 2019년 1.9만달러, 2020년 1.7만달러로 하락할 전망임. (선박뉴스)

동 자료는 작성일 현재 사전고지와 관련한 사항이 없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과 계열회사의 관계가 없으며 2018년 1월 24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유가증권(DR, CB, IPO, 시장조성 등) 발행 관련하여 지난 6개월 간 주간사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당사는 2018년 1월 24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는 2018년 1월 24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접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김현)

동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동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원칙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동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동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